

KLI 고용·노동 리포트

K o r e a L a b o r I n s t i t u t e

2011. 10. 15 | 통권 제7호(2011-07) |

최근 자영업 노동시장 특성 및 자영자 가구소득 실태

[요약]

- 최근 경기회복과 더불어 고용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영업 부문의 구조조정은 민생과 직결된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생계형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음.
- 베이비붐 세대의 주축인 50대 연령층에서 경쟁이 심한 생계형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5인 미만 영세사업체, 나홀로 사업체의 창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이들이 빈곤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
- 자영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자의 기초체력을 강화해 하고, 생계형 서비스업을 지원·육성하며, 자영업자의 빈일자리로의 원활한 이동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한편,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해 1990~2010년까지 20여 년 동안 자영자 가구의 소득 실태와 변화추이를 임금근로자와 비교한 결과, 외환위기 이후 자영자 가구의 소득창출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임금근로자 가구와 소득역전 현상이 발견됨.
- 자영자 가구의 상대빈곤율과 적자가구 비중이 증가해 자영자 가구의 저소득 위험 및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자영자 가구의 빈곤위험이 저학력-중고령층에 집중되어 있어 자영업자의 저숙련-중고령화-저소득 연결고리를 풀어 이들 가구의 경제적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방안 모색이 절실함.

자영업자의 최근 고용변화

❖ 경제활동인구 4명 중 1명이 자영업자

- 우리나라의 취업자 대비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2010년 28.8%로 그리스(35.2%) 다음으로 높아 OECD 회원국 중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음.
- ILO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08년 기준 자영업자의 비중이 25.3%를 차지해 멕시코

(27.4%), 칠레(25.6%) 등과 함께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국가에 속하며, 선진국의 자영업자 비중이 10% 전후인 것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임.

- 2010년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는 24,748천 명이며, 이 중 자영업자가 5,592천 명으로 경제활동인구 4명 중 1명이 자영업자로 나타남.

〈OECD 회원국의 취업자 대비 비임금근로자 비중 추이〉

(단위 : %)

		2006	2007	2008	2009	2010
상위	그리스	35.5	35.0	34.9	35.0	35.2
	한국	32.8	31.8	31.3	30.0	28.8
	이탈리아	24.7	24.4	23.9	23.5	23.7
	폴란드	24.4	23.5	22.9	22.7	22.8
하위	에스토니아	8.0	8.9	7.7	8.1	8.2
	덴마크	6.2	6.1	6.0	6.2	6.3
	노르웨이	7.0	6.6	6.4	6.3	6.2
	스웨덴	5.7	5.7	5.4	5.4	5.5

주 : 2010년 비임금근로자수가 발표된 OECD 회원국 중 상위 4개국, 하위 4개국이며,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높은 멕시코와 칠레는 2009년 기준 각각 27.5%, 26.0%를 기록함.

자료 : <http://stats.oecd.org>

❖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자영업 부문의 구조조정

- 2011년 상반기 동안 전년동기대비 412천 개의 고용이 증가하였고, 2011년 하반기 경제가 예상 전망치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도 2011년 8월 고용은 전년동월대비 490천 개 증가하여 고용혼풍이 이어지고 있음.
- 2011년 8월 고용은 상용직 근로자의 증가세가 다소 주춤한 반면, 자영업자를 주축으로 한 비임금근로자가 전년동월대비 28천 명 증가하여 2010년 8월 183천 명 감소했던 것과 큰 차이를 보임.
- 그러나 2008년 불어닥친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에 259천 명의 자영업자가 휴·폐

업을 단행하였고,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의 구조조정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 2011년 상반기 동안 전년동기대비 77천 명의 자영업자가 사업체의 문을 닫았고, 이들 대부분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61천 명)로 나타남.
- 경제사정이 좋지 않았던 IMF 외환위기, 2003년 카드대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마다 경제위기의 최일선에서 고용한파를 겪었던 계층은 자영업자였음.
- 1997년 말 시작된 IMF 외환위기 시에는 임금근로자 중심의 고용조정과 더불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몰락이 고용감소를 주도함.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고용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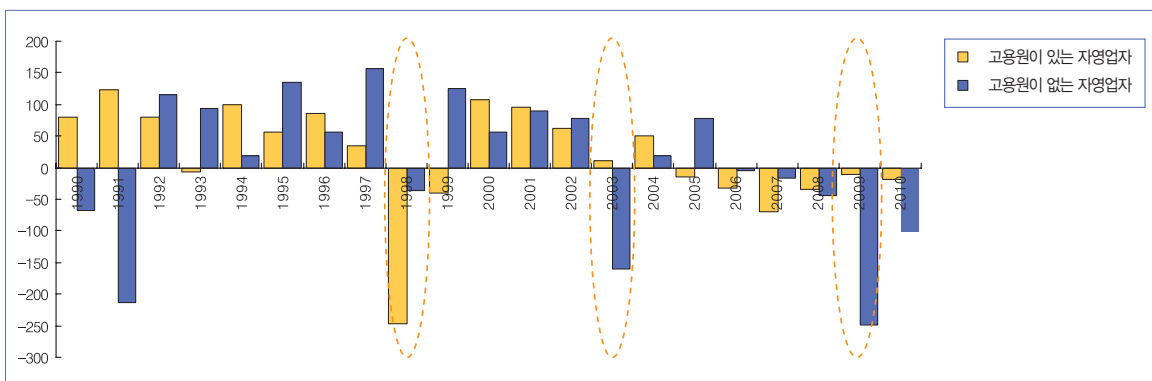
(단위 : %, 천 명)

	2007	2008	2009	2010	2007 상반기	2008 상반기	2009 상반기	2010 상반기	2011 상반기
임금근로자	420	236	247	517	399	300	124	497	470
상용직	416	386	383	697	363	441	315	708	613
임시직	29	-93	22	-34	81	-97	-71	3	-113
일용직	-26	-57	-158	-146	-46	-44	-121	-214	-30
비임금근로자	-138	-92	-319	-194	-122	-109	-264	-214	-58
자영업자	-85	-79	-259	-118	-87	-73	-241	-98	-77
- 고용원 있는	-70	-35	-10	-18	-74	-20	-39	10	-16
- 고용원 없는	-15	-44	-249	-100	-13	-52	-202	-108	-61
무급가족종사자	-52	-13	-60	-75	-35	-36	-23	-116	2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자영업자(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고용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또한 2003년 카드대란, 2008~2009년 세계 금융위기 시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특히 5인 미만 사업체, 나홀로 사업체의 휴·폐업이 고용부진을 주도함.

업 일자리 중 59천 개가 5인 미만 영세사업체였으며, 대부분 도소매업(-62천 개), 교육서비스업(-27천 개), 음식숙박업(-15천 개) 등 서비스 부문에 집중되어 있음.

❖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을 중심으로 한 영세 자영업자의 구조조정 지속

- 도소매업, 운수업, 음식숙박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 내수산업에서 자영업 비중이 높으며, 이들 대부분이 5인 미만 영세사업체이거나 나홀로 사업체임.
- 2011년 상반기 동안 사라진 77천 개의 자영

❖ 50세 이상 중고령층의 영세사업체 중심으로 창업 활발

- 자영업의 지속적인 구조조정 속에서도 2011년 상반기 동안 50대 이상 중고령층(106천 명)에서의 생계형 창업이 증가하고 있음.
-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주축인 50대 연령층의 자영업자 비중은 2011년 상반기 33.2%

를 차지하여 전년동기대비 하락하였으나, 50대 영세자영업자의 비중은 55.7%를 차지하여 세계 금융위기 이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50대 영세자영업자는 대부분 도소매업, 건설업, 운수업, 개인서비스업 등에서 생계형 창업이 활발하고, 특히 영세자영업자의 고용감소를 주도한 도소매업 부문에서 50대 연령층의 창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50대 연령층의 창업은 주로 경쟁이 심한 생계형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어 도산 확률이 높

아 빈곤화에 노출될 위험이 큼.

❖ 자영업의 현주소는 '위기'

- 경기회복 이후 고용혼풍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의 구조조정은 민생과 직결된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생계형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음.
 - 2011년 상반기 자영업자 비중은 23.5%를 차지하여 IMF 외환위기(27.8%), 2003년 카드대란(27.3%), 2008년 세계 금융위기(24.3%) 때보다도 줄어듦.

〈영세자영업자의 산업별 고용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2007	2008	2009	2010	2007 상반기	2008 상반기	2009 상반기	2010 상반기	2011 상반기
전 체	-47	-64	-258	-95	-46	-65	-224	-95	-59
농림어업광업	-46	-14	-32	-41	-38	-24	-22	-61	-18
건설업	-29	-30	-13	36	-21	-37	-21	39	6
제조업	2	5	-26	5	5	17	-37	13	-0
서비스업	27	-25	-187	-96	7	-19	-144	-87	-47
도소매업	-65	-19	-37	-50	-92	-15	-30	-31	-62
운수업	60	-3	6	14	55	9	2	17	25
음식숙박업	-17	-19	-52	-45	-11	-16	-52	-43	-15
부동산 및 임대업	6	-1	-12	-10	7	-8	1	-22	2
교육서비스업	11	-5	13	-1	19	-7	8	15	-27
기타	-0	-0	-0	1	0	-1	-	1	-0

주 : 영세자영업자는 5인 미만 사업체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를 의미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자영업자의 기초체력을 강하게 하고, 자영업자의 빈일자리로의 원활한 이동을 도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들이 강화되어야 함. 더불어 50대 이상 중고령층에서 생계형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창업은 '자영업자의 빈곤화'라는 또 다른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생계형 서비스업을 지원·육성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임.

자영자 가구의 소득실태와 변화

❖ 자영자 가구 소득창출력 약화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해 1990~2010년까지 20여 년 동안의 자영자 가구의 소득실태와 변화추이를 임금근로자와 비교한 결과, 외환위기 이후 자영자 가구의 소득창출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임금근로자 가구와 소득역전 현상도 발견됨.

〈영세자영업자의 연령별 고용비중 추이(취업자 대비)〉

(단위 : %)

	2007	2008	2009	2010	2007 상반기	2008 상반기	2009 상반기	2010 상반기	2011 상반기
20세 미만	0.3	0.3	0.2	0.3	0.3	0.3	0.3	0.2	0.2
20대	3.4	3.6	3.2	3.1	3.4	3.4	3.6	3.4	3.3
30대	15.5	14.1	12.6	12.2	16.8	15.6	14.4	12.8	12.6
40대	41.4	38.7	34.4	30.6	46.7	42.6	39.6	35.5	31.5
50대	52.8 (36.9)	53.3 (35.6)	53.7 (35.0)	53.7 (33.6)	54.4 (37.4)	53.4 (35.7)	54.0 (35.3)	55.0 (34.1)	55.7 (33.2)
60세 이상	12.4	12.6	12.7	12.7	12.1	12.2	12.4	12.5	12.4

주 : ()안은 50대 자영업자 비중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자영업자 가구의 경상소득은 1990년 246천 원에서 2010년 2,312천 원(연평균 11.3% 증가)으로 증가했으며, 가구주 본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시장으로부터 얻는 근로(사업)소득은 같은 기간 208천 원에서 1,635천 원으로 연평균 10.3% 증가했음.
- 이에 비해 임금근로자 가구의 경상소득은 같은 기간 237천 원에서 2,470천 원(연평균 11.8% 증가)으로 증가했으며, 가구주 근로(사업)소득은 186천 원에서 1,783천 원(연평균 11.4% 증가)으로 증가했음.
- 외환위기 이후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창출력이 임금근로자 가구에 비해 약화되었으며, 이와 같은 자영업자 본인의 소득창출력 약화는 배우자 및 기타가구원의 소득의존도를 높이는 것으로 분석됨.
 - 자영업자 가구의 가구주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비중은 1990년 84.8%에서 2010년 기준 70.7%로 14.1%p 낮아진 데 비해, 임금근로자 가구의 가구주 근로(사업)소득 비중은 1990년 78.8%에서 2010년 72.2%로 같은 기간 6.6%p 정도 하락하는 데 그침.
 - 이처럼 자영업자 가구의 사업체 운영을 통해 확보되는 소득하락으로 인해 배우자

및 기타가구원의 근로소득 비중이 1990년 12.3%에서 2010년 24.8%로 12.5%p 증가함. 이는 같은 기간 임금근로자 가구의 배우자 및 기타가구원 소득구성 변화(16.6%→22.2%, 5.6%p)와 대조를 이룸.

-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지수(균등화 시장소득 기준)는 2000년 235.5에서 2010년 407.1로 변화하여 지난 20여 년 동안 4.1배 정도의 소득증가가 있었던 반면, 임금근로자 가구의 소득지수는 2000년 263.4에서 2010년 452.3(4.5배)으로 자영업자 가구보다 높은 소득증가를 보임.

❖ 자영업자 가구의 빈곤위험 및 경제적 어려움 증가

- 자영업자 가구의 상대빈곤율은 1990년 6.3%에서 2010년 8.4%로 증가했으며, 적자가구의 비중도 같은 기간 10.4%에서 19.7%로 증가해 최근 자영업자 가구의 저소득 위험 및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자영업자 가구의 시장소득 기준 상대빈곤율(중위소득 50% 미만 가구 비중)은 1990년 6.3%에서 외환위기 시기인 1998년에 7.2%까지 증가했고, 세계 금융위기 시기인 2008년에는 11.7%까지 증가했음. 2010년 기준 상대빈곤율은 8.4%로 2008년에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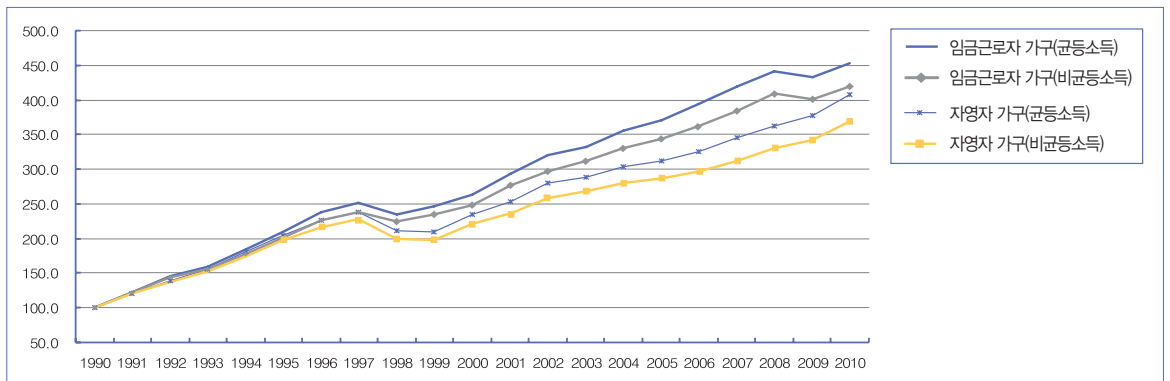
〈자영자 가구의 경상소득 실태와 추이 : 1990 ~ 2010〉

(단위 : 천 원, %)

		1990	1993	1996	1998	2001	2003	2005	2008	2010	증가율
자영자 가구	경상소득	246	465	785	816	1,060	1,292	1,504	1,921	2,312	11.3
	본인근로+사업	208	391	642	655	812	980	1,102	1,353	1,635	10.3
	가구원근로+사업	30	65	120	132	208	272	330	475	574	15.1
	재산소득	2	3	7	7	7	5	5	8	5	5.1
	공적이전소득	1	1	4	3	9	12	22	36	46	20.1
	사적이전소득	5	6	12	17	23	23	45	49	53	12.2
임금 근로자 가구	경상소득	237	457	790	878	1,188	1,428	1,705	2,242	2,470	11.8
	본인근로+사업	186	354	588	664	882	1,065	1,237	1,634	1,783	11.4
	가구원근로+사업	39	84	168	176	252	311	380	491	547	13.4
	재산소득	2	5	7	11	11	5	7	7	8	5.7
	공적이전소득	1	3	6	5	12	14	25	43	60	19.3
	사적이전소득	7	11	20	23	30	34	56	66	71	11.7

주 : 1) 경상소득은 실질·균등소득임.
 2) 실질소득은 소비자물가지수(2005=100.0)로 조정한 금액임.
 3) 균등소득은 해당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금액임.
 4) 증가율은 1990~2010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임.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년도.

〈자영자 가구의 소득지수 변화 추이 : 1990 ~ 2010〉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년도.

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1990년대의 6~7%대로 회복되지는 않고 있음. 임금근로자 가구의 빈곤규모도 1990년 6.2%에서 2010년 3.0%p 증가한 9.2%의 상대빈곤율을 기록하고 있어 우리나라 전반에서 빈곤 위험이 과거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확인됨.
 -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적자가구 비중과 흑자규모(금액)를 살펴보면, 자영자 가구의 적자가구 비중

은 1990년 10.4%에서 2010년 19.7%로 증가했고, 흑자규모(금액)도 임금근로자 가구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임.
 · 자영자 가구의 적자가구 비중은 외환위기 시기인 1998년 10.7%로 1990년에 비해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외환위기 이후인 2001년 19.9%, 세계 금융위기 시기인 2008년에 24.2%까지 증가했고, 2010년에는 19.7%로 자영자 5가구 중 1가구는

〈자영자 가구의 상대빈곤율 추이와 변화 : 시장소득 기준〉

(단위 : %)

	발생비			구성비		
	전 체	자영자 가구	임금근로자 가구	자영자 가구	임금근로자 가구	무직자(기타) 가구
1990	7.8	6.3	6.2	22.7	53.4	23.9
1993	8.2	6.5	5.8	24.4	45.5	30.1
1996	8.2	7.5	5.7	28.7	43.2	28.1
1998	11.4	7.2	6.9	19.5	35.6	44.9
2001	11.3	7.0	6.7	19.8	33.9	46.3
2003	13.1	7.5	8.3	17.3	37.4	45.3
2005	13.6	10.5	8.8	22.7	39.1	38.2
2008	14.7	11.7	8.5	20.9	36.0	43.1
2010	14.9	8.4	9.2	13.2	38.7	48.1

주 : 시장소득은 명목·균등소득임.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년도.

〈자영자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 정도 : 적자가구 비중 및 흑자규모(가처분소득 기준)〉

(단위 : %, 원)

	적자가구 비중		흑자액		
	자영자 가구	임금근로자 가구	자영자 가구(A)	임금근로자 가구(B)	A-B
1990	10.4	10.7	133,002	139,469	-6,467
1993	9.3	10.2	230,369	237,400	-7,031
1996	9.5	10.5	351,682	351,265	418
1998	10.7	9.2	298,972	366,673	-67,701
2001	19.9	14.9	252,629	359,441	-106,812
2003	19.0	13.9	323,039	427,732	-104,693
2005	21.9	15.4	330,215	473,231	-143,016
2008	24.2	15.4	429,908	590,394	-160,486
2010	19.7	18.0	494,436	568,760	-74,324
증가율(평균)	16.1	13.1	15.7	16.9	-74,457

주 : 가처분소득은 명목·균등소득임.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년도.

지출이 소득보다 많은 적자가구인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임금근로자 가구의 적자가구 비중은 1990년 10.7%에서 2010년 18.0%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지만 자영자 가구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임.

※ 적자가구 비중은 가처분소득(경상소득-공적 비소비지출(경상조세, 연금, 사회보험 등))보다 가구소비지출 규모가 큰 가구의 비율로 정의되며, 가구의 저축여력과 실생계의 위험정도를 파악하는 지표로 활용됨.

❖ 자영업자의 저숙련-중고령화-저소득 연결고리

- 자영자 가구의 빈곤위험은 임금근로자 가구와는 달리 저학력층과 중고령층에 집중되어 있어 자영업자의 저숙련-중고령화-저소득 연결고리를 풀어 이들 가구의 경제적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방안 모색이 절실히 보임.
 - 빈곤 자영자 가구의 초출 이하의 저학력층 비중은 1990년 23.6%에서 2010년 21.0%로

- 큰 변화가 없고, 같은 기간 중졸 이하 학력층 비중도 19~23% 수준으로 높게 나타남.
- 반면, 임금근로자의 경우는 초졸 이하 저학력층 구성이 1990년 38.0%에서 2010년 16.9%까지 크게 하락했고, 중졸 이하 학력계층에서도 같은 기간 26.8%에서 12.0%까지 하락했음.
- 2010년 기준, 빈곤에 처해 있는 자영자 가구의 저학력층(초졸+중졸 이하) 구성은 41.9%로 임금근로자 가구의 28.9%를 크

게 상회하고 있음.

- 연령별 빈곤구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자영자 및 임금근로자 가구 모두에서 고연령층 빈곤구성이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이러한 경향은 자영자 가구에서 더 두드러짐. 2010년 기준 45~64세 중고령층이 전체 빈곤 자영자 가구의 절반(50.7%)을 차지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고령층도 22.1%로 10년 사이(2000년 4.5%)에 크게 증가함.

〈빈곤 자영자 가구의 가구주 학력·연령별 구성변화: 시장소득 기준〉

(단위 : %)

		자영자 가구			임금근로자 가구		
		1990	2000	2010	1990	2000	2010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학력	초졸	23.6	14.2	21.0	38.0	16.2	16.9
	중졸	22.8	18.7	20.9	26.8	24.5	12.0
	고졸	47.7	55.0	39.2	32.7	45.0	53.4
	초대졸	0.5	6.1	7.7	1.2	6.5	7.5
	대학 이상	5.4	6.1	11.3	1.4	7.9	10.2
연령	30세 미만	6.2	5.1	0.0	17.5	10.2	3.7
	30~44세	64.7	58.3	27.3	58.2	54.1	42.7
	45~64세	25.6	32.0	50.7	23.3	30.8	36.9
	65세 이상	3.5	4.5	22.1	1.0	4.9	16.7

주 : 1) 시장소득은 명목·균등소득임.
 2) 빈곤가구는 상대빈곤을 기준에 따른 것임.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년도.

김복순·반정호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seesaram@kli.re.kr / Tel. 02-3775-5579
 jhban@kli.re.kr / Tel. 02-3775-5581

※ 본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 홈페이지 www.kli.re.kr 을 통하여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



발행인: 김승택 / 편집인: 장흥근 / 편집·교정: 정 철
 150-740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Tel : 02-3775-5514 / Fax : 02-3775-0697 / www.kli.re.kr